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81 호

2023년 8월 17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8 월호 요약
2. 반부패/인권 실무그룹 2 차 미팅 결과 공유
3.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 워크숍 결과공유
4. 「SDGs 를 위한 CFO 연합」 온라인 설명회(8/29) 신청 안내

■ 본부 소식

1. 2023 UNGC 리더스 서밋 개최 2023.09.19 | 미국 뉴욕
2. UNGC, 공급망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브리프 발표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한국가스기술공사

■ UNGC & 회원사 뉴스

1. 팬택씨앤아이 계열, UNGC 가입... “지속 가능한 성장 이어갈 것”
2. 인라이트벤처스, 국내 VC 최초 UNGC 가입...“ESG 경영 강화”
3. SK 이노베이션, 소셜벤처에 ESG 노하우 나눔...환경가치 창출 지원한다
4. 현대차 노사, 저출산·육아지원 전담팀 공동 구성
5. '탄소중립에 진심' LG 전자...작년 온실가스 22 만 t 줄였다
6. KB 증권, MZ 세대와 해운대 플로깅 캠페인...ESG 경영 실천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8 월호 요약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VOLUME 35 | August 2023

웹에서 보기

Monthly Insights



■ 목차 ■

1. 재생에너지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정부와 기업의 역할
2. 전문가 인사이트 |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3.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4. 한국협회 소식 | 본부 소식
5. ESG 최신 동향: 2023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 | 지속가능한 여행

이번 Monthly Insights 의 주제는 재생에너지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환이란 '녹색 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에게 가능한 한 정의롭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정부와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지원 의제

▪ **사회·환경적 기대치와 가격·속도 간의 균형 유지:** 일반적으로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시급하게 달성할 수 있는 최저가 프로젝트를 찾는 한편, 기업이 비용을 늘려 환경 및 사회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입찰 등을 진행할 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강력한 환경 및 사회적 보호조치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럴 경우 초기 비용은 더 높지만 입찰을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를 더욱 창출할 수 있고 개발 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의 자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산업계는 가격 70%, 사회적 요소 20%, 실행 능력 10%를 기준으로 입찰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창출합니다. 가격 외에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의 포함 여부,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 일자리 창출 가능성, 지역 산업 및 사업의 발전 가능성, 저개발 지역의 경제활동 창출 기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기술 및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 장려:** 정부는 목적에 맞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해상 풍력 및 친환경 수소 등 신규 산업의 경우, 유럽과 북아메리카 이외의 지역에서는 필요한 기술을 갖춘 노동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사업자 및 노조와 함께 기술협회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하고, 특히 청년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모범적 접근 방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교육기관과 노동조합, 사업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효과적으로 기술과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교육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10가지 권고안

1.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하라:** 넷제로 공약을 채택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ILO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면 영향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 특히 초기 도입자(early movers)에게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2. **야심찬 목표를 공개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라:** 100%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 가치사슬에서 야심찬 사회·환경적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회사 경영진이 공개하고 회사 전체의 전폭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3. **포용성과 투명성을 추구하라:** ILO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바로 사회적 대화입니다. 사업자와 노동계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기업과 새롭게 투자하는 지역사회, 원주민과의 대화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고려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조기에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의 완전한 참여와 함께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문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씹크랩(Think Lab on Just Transition)을 통해 도출한 7가지의 기업 지원의제 및 기업들이 정의로운 전환 프로세스에 잘 적응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10 가지 권고사항을 담았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한국의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 정부와 기업의 역할



김윤성

|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2014년에 설립된 민간 비영리기관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주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난 전력시장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주제들을 다룹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산업을 위한 정책,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경제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가 지역이 발전하고 재생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코너에는 “한국의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김윤성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있어 환경적 가치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접근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한국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고찰합니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세계 각국 금융감독당국이 모여 국제적인 증권 관련 규제를 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7월 25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금융시장의 95% 이상을 규율하는 130개 감독당국에 ISSB 기준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의 ISSB 기준을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세계 처음으로 발표하였고 영국, 캐나다, 일본, 나이지리아, 칠레, 말레이시아, 브라질,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ISSB 공시 기준 채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OSCO, ISSB 공시기준 승인...세계 130개 감독당국에 활용 요청](#)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코너에서는 ▲”IOSCO의 ISSB 공시기준 승인” ▲”기후변화 위험 관리를 강조한 OECD의 기업 거버넌스 원칙 개정” ▲”유럽서 2027년까지 ICT 인재 390만명 부족에 여성 고용 확대가 해법” 등의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SG 최신 동향



[GEK] 2023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

[자세히 보기](#)



[ESG] 지속가능한 여행

[자세히 보기](#)

마지막으로 이번 호부터 추가된 'ESG 최신 동향' 코너를 통해 ESG 관련 최신 동향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간한 2023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 및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관광 업계와 유엔 세계관광기구 등의 지속가능한 여행 동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상현 과장, 직통번호: 070-4327-9771)

[자세히 보기](#)

2. 인권/반부패 실무그룹 2 차 미팅 결과 공유

[반부패 실무그룹 2차 미팅] 결과 공유

2023년 07월 13일

일시: 2023년 7월 13일 (목) 오후 2시~5시

장소: 바비엡2 교육센터 3층 컨퍼런스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7월 13일(목) 2023년도 반부패 실무그룹 2차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머신러닝 기술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영상을 상영한 뒤, 'ESG 리스크 관리의 방법과 사례'에 대한 강의 및 기업 사례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그룹으로 나뉘어 참여시간 반부패 현황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 기업/기관(가나다 순): 넥센타이어, 동아쏘시오홀딩스, 롯데쇼핑, 법무법인(유) 지평,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서울경제진흥원, 애규온캐피탈, 주식회사 디알비 동일, 팬택씨앤아이,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콜마, 한독, 한세실업, 한세에스24홀딩스, 현대캐피탈, 해양환경공단, HD현대인프라코어, HMM, LG디스플레이, SKC인프라서비스

1. 인사말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 참여 회원사에 환영 인사를 전하며,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의 내재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그룹의 운영 의의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ESG, 공급망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은 앞으로 ESG를 준법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와 연결해야 ESG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고, 발생 가능한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여사들이 실무그룹에서 "적극적으로 반부패 현황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



조지타운대학교 법대 조나단 러쉬(Jonathan Rusch) 교수

2. 머신러닝 기술 및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영상) 및 ESG 리스크 관리의 방법과 사례

먼저 조지타운대학교 법대 조나단 러쉬(Jonathan Rusch) 교수의 <머신러닝 기술 및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영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러쉬 교수는 기업이 반부패 머신러닝 솔루션 사용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때 ▲규칙기반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 기술의 차이점, ▲머신러닝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 확보 여부, ▲머신러닝 솔루션을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기능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사용할지 여부, ▲머신러닝 솔루션을 채택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과 투자수익률 파악 등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 머신러닝 솔루션 기업 사례를 설명하고 발표를 마쳤습니다. 앤하이저부시 인베브의 경우 자금 세탁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제3자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했고, 마지막으로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는 의사 또는 여러 의약품 공급자 등으로 구성된 제3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법무법인 율촌 문성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와 ESG의 연계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문변호사는 UNGC, UN PRI(책임투자원칙) 등 ESG 출범 배경을 설명하며, 최근 ESG 투자 관련 규제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며, 이제 재무, 인사, 회계, 환경 등 모든 기업 이슈가 ESG와 연관되어, 기업은 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ESG 규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을 포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시행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지침이 내부적으로 잘 공유되고, 구성원들이 자신의 행동이 뉴스에 나와도 되는지(뉴스페이퍼 테스트)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와 ESG의 통합적 관리는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책무이고, 이는 ESG-리스크-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 간 구체적인 업무 배분 및 주기적 관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위성 또한 컴플라이언스의 큰 도전과제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주기적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사회 및 ESG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내외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문성 변호사



3. ESG 리스크 관리 기업 사례 발표 - 롯데쇼핑, 동아쏘시오홀딩스

롯데쇼핑 전희수 책임은 ESG 리스크 평가, 공급망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전희수 책임은 협력사 ESG행동규범(준법윤리경영, 인권경영, 환경경영, 안전경영,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도입했으며, 공정한 협력사 선정 및 평가 방법은 신용평가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롯데쇼핑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관련해서는 임직원들의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조했으며, 각 사업별로 공정거래 법규들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맞춤형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리스크 평가 분야에서는 세부 업무 단위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 유형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고유위험도와 통제 정도로 잔여위험도를 산정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전 사업부 대상으로 내부심사(모니터링)를 진행하고 회사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신지원 책임은 공급망 ESG 관리 체계를 5가지 단계(1. Commitment, 2. Identification, 3. Assessment, 4. Implementation, 5. Communication)로 나눠 다음과 같이 각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1. 협력사와의 행동강령 제정 및 공개 단계로 반부패, 인권, 노동, 환경 부문의 행동강령 제정. 2. 공급망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로 그룹사의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공급망 관리가 요구되는 범위 설정. 3. 리스크 평가로 공급망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직간접 공급망 리스크를 포함하여, 발생가능성과 영향도 기준으로 리스크 정도 결정. 4. 공급망 실사 이행 단계로 연 1회 실시, 현장 실사 전 자가진단 마련,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업체 및 중요도에 따른 방문 실사를 확대하는데 초점. 5. 모니터링 및 교육 단계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주요 협력사 대상 공급망 관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쇼핑 전희수 책임



동아쏘시오홀딩스 신지원 책임

4. 참여 회원사간 현안 공유

현안 공유 세션에서는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의 진행으로 참여사별 소그룹 토의를 통해, 현업에서 ESG 및 컴플라이언스 추진 방향과 애로사항, UNGC 활동 참여 등에 대해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그룹 토의에서는 ▲ 최고 경영진 의지의 중요성 ▲ C레벨 참여 활성화 방안 ▲ 보상 체계 마련 ▲ 제재 및 인센티브를 통한 ESG(컴플라이언스) 확대 ▲ 원활한 ESG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력 방안 ▲ 내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 내부 교육 프로그램 구축 ▲ 공급망 실사 관리 체계 수립 ▲ 제3자 평가를 위한 협력사와의 소통 방안 ▲ ISO 37001, 37201 도입 현황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공유했습니다.

또한 실무진들은 UNGC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ESG 이슈별 프로그램들을 통해 실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액셀러프로그램 등 참여를 통한 ESG 현황 점검 및 목표수립 ▲ 회원사 간 상호 학습 및 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ESG 경영 추진 ▲ COP 보고를 통한 공시 및 ESG 수준 점검 ▲ 다양한 부서 직원들의 참여를 통한 ESG 인식 제고 및 교육 활용 등 UNGC의 여러 활동에 대한 이점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경 실장은 각 현업 실무자들이 ESG 관점에서 자사와 부서의 역할과 과제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UNGC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회원사 간 상호 학습 세션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며 실무그룹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추후 3차 미팅에도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반부패 실무그룹: 장한별 과장 (070-4327-9768, gckorea@globalcompact.kr)

[인권 실무그룹 2차 미팅] 결과 공유

2023년 07월 21일

일시: 2023년 7월 21일 (금)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바비엡2 교육센터 3층 D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7월 21일(금) 2차 인권실무그룹을 개최하였으며, 총 24개 기업에서 36명의 실무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업의 DEI 정책 내재화와 변화 관리>를 주제로 한 이번 실무그룹에서는 DEI와 관련된 기업 담론을 살펴보고, 주제 발표 및 기업 사례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참여기업/기관의 인권/DEI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 및 토의하는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참여기업/기관(가나다순): 근로복지공단, 넥센타이어, 두산, 법무법인(유) 지평, 애큐온캐피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코웨이,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하나투어,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한독, 한세실업, 한세예스24홀딩스, DRB동일, KCC글라스, SK실트론, SK이노베이션, SKC인프라서비스

1. 인사말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 성평등은 비즈니스 성과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ESG 경영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의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권경영 및 DEI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와 규제가 증대되고 기업들의 내재화와 대응이 중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참여사들이 인권 실무그룹을 통해 “기업 조직 구성원들의 인권 및 다양성, 포용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는데 일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인사말을 마쳤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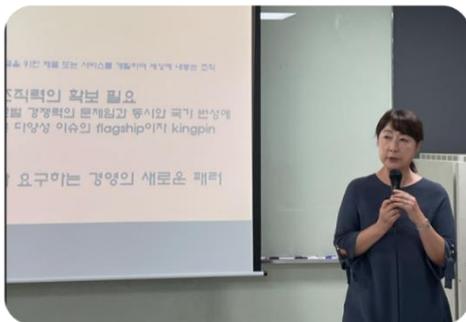


마스터카드 부회장 앤 케언즈(Ann Car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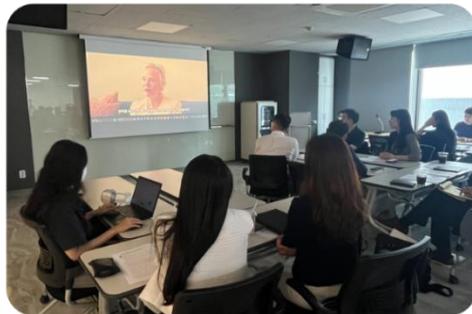
2. 앤 케언즈 마스터 카드 부회장 (영상) 및 기업 젠더/DEI 정책 내재화와 변화관리

먼저 '30%클럽' 회장 겸 마스터 카드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마스터 카드 부회장 앤 케언즈(Ann Carins)의 영상 시청이 있었습니다. 그는 2011년 영국에서 시작된 30%클럽의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균형 잡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임원 비율의 30%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FTSE 350 기업 내 모든 이사회에 여성임원 및 유색인종 여성을 구성하는 목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마스터카드의 성평등을 위한 사내 제도를 소개하고, 전세계 모든 지사에서 '4개월 간 전액 유급 모·부성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했으며, 여성들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는 2500만개의 중소기업을 금융 시스템이 편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한국 내에서도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을 통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김문주 겸임교수(여성은 전략적 파트너인가 공저)는 강연을 통해, 기업이 회사 내 성평등 가치를 하나의 기업문화로 내재화 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남녀, 세대, 지역갈등을 사회와 기업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사내 가족친화제도와 여성할당제와 같은 제도들을 통해 성평등을 위한 필요조건을 갖출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 리더십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기업내 성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여성을 전략적 파트너로서 서로 환대하기 위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협업의 파트너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남성동료의 지지가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양성 관리가 기업의 전략적 의제에 포함되고 회사의 미션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 진정성이 직원들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는지 체크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김문주 겸임교수



3. DEI 정책 및 활동 기업 사례 발표 - P&G, 한국콜마홀딩스

한국 P&G의 예현숙 상무는 '한국 P&G의 포용적 조직과 사회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P&G는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로 전직급 균형성비 5:5, 여성임원비율 50%라고 밝히고, 임직원, 브랜드, 파트너, 지역사회와 함께 모두가 평등하고 포용적인 조직과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성평등-다양한 유연근무제 및 공정한 채용, 능력 중심의 평가시스템 도입, 사내인식 개선 프로그램(남성리더교육, UN Women과 협업,차세대 여성리더 양성) 실시, 협력사 성평등 제고 캠페인 진행 △소수자 평등- 임직원 교육 진행, 고객사 협력을 통한 포용적인 쇼핑지원, LGBTQ+ 행사 공동 진행 △장애인 평등- 장애인 직원 채용 제도, 제품 접근성 개선,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의 김종철 국장은 '한국콜마홀딩스의 젠더정책 및 활동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콜마 그룹은 △고객 △임직원 △파트너 △주주들에 대한 신뢰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방침을 소개했습니다. 양성평등, 채용, 승진 등의 차별금지 원칙과 함께 콜마의 인권경영 정책을 공유하고, 출산장려금, 효도수당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및 콜마 3사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임원 대상 교육, 적극적인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및 남녀고용평등 노력을 공유하고, 특히 여성 생명과학인 후원 및 청소년 뷰티 진로 멘토링 등을 통해 업의 특성에 맞춰 진행중인 젠더포용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21년부터 가입한 UNGC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젠더 및 ESG 이슈를 내재화하고, 세대 구분 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P&G 예현숙 상무



한국콜마홀딩스 김종철 국장

4. 패널 및 참여 회원시간 현안 공유

이어 패널로 참석한 고려대학교 경영대 문형구 명예교수는 다양성이란 조직 내에 누가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는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남성과 여성이 직장 동료로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향후 한국 기업들은 젠더, 장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인종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안 공유 세션에서는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의 진행으로 참여사별 인권 경영 체계 및 인권실사 대응, 젠더, DEI 등을 주제로 추진 현황과 정책 및 계획들을 소그룹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사 및 ESG 담당으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젠더 및 DEI 추진 정책, △유관부서 협조와 지원 방안 △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인권 경영, △주주 및 투자자 요구 대응을 위한 인권경영, △임원 및 리더십 설득, △공급망 인권경영 확대 방안, △남성 육아휴직 등 유연근무제도 확대, △해외 사업장에 대한 인권실사 등과 같이 다양한 조직내 인권경영에 관한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인권실무그룹을 통해 직장내 여성 임원의 비중을 높이고, 조직내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방안 등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2차 미팅을 마쳤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 문형구 명예교수



추후 3차 미팅에도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인권 실무그룹: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3.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 워크숍 결과공유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 워크숍 결과공유

2023년 7월 20일

일시: 2023년 7월 20일 (목) 오후 2시~5시

장소: ENA 스위트호텔 R.ENA 컨벤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7월 20일(목)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limate Ambition Accelerator, 이하 CAA) 참여사 대상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18개 기업에서 약 30여명의 실무진이 참석한 본 워크숍에서는 유연철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Scope 3 관리에 대한 강의, SBTi 승인 사례 소개, CAA 알럼나이 초청대화, 그리고 참여사간 CAA 참여현황 및 온실가스 관리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인사말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반 감축목표 설정이 필수적임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Scope 3는 기업의 직접적 통제영역 밖에 있어 관리가 어렵지만 SBTi는 Scope 3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고 ISSB 표준에도 의무사항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이 Scope 3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에 “CAA 프로그램이 많은 기업들이 과학에 기반해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CAA 참여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장한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과장

2. 발표

이어서 “Scope 3 산정 및 감축 전략”을 주제로 **이진규 삼일 PwC 파트너**의 기초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 파트너는 기업이 경쟁력을 관리하고 기후위기 전환 리스크를 가능하는 척도로서 Scope 3 배출량 관리가 필수적임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Scope 3 배출량 관리 동향, △조직경계 설정 및 온실가스 산정방법, △Scope 3 카테고리 우선순위 평가기준, △SBTi 감축 전략 수립 노하우, △각종 데이터 활용법 등을 설명하며 “사전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Scope 3 카테고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데이터 접근 용이성을 고려해 최적의 산정 방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Scope 3 관리는 기업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가치사슬 내의 협력사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SK 텔레콤 이재형 매니저**의 SBTi 목표 승인 사례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재형 매니저는 ‘20년 2월 비교적 일찍 SBTi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총 2년 6개월의 기간동안 목표 수립, 제출, 검증, 소통 및 공시를 거친 경과를 단계별로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SBTi 목표를 SK 텔레콤의 친환경 전략과 연계한 점을 설명하며, “넷제로 목표 수립 시 SBTi를 고려하지 않으면 1.5도 경로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SBTi 기준에 맞추어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Scope 3 목표 설정과정, △자회사 Scope 3 관리 등 SBTi 목표 승인 및 Scope 3 관리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며 기업 실무진들의 문의에 답변하였습니다.



이진규 삼일 PwC 파트너



이재형 SK 텔레콤 매니저

3. CAA 알럼나이 초청대화

다음으로는 2022년 1차 기후 앰비션 엑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업 실무진들과 함께하는 “CAA 알럼나이 초청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포스코이앤씨의 공병수 차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작년 처음으로 Scope 3 배출량 산정을 시작해 올해 4월에 SBTi 가입하였고, 곧 목표 검증을 앞두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CAA를 통해서 기본 이론을 숙지하고 인벤토리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배출량 산정 및 SBTi에 관해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DRB동일방준섭 매니저는 2019년부터 전 계열사에서 Scope 1, 2를 산정해오고 있으며 고객사들의 SBTi 가입 요구에 부응해 올해 9월 SBTi 지지 선언을 준비 중이라 소개했습니다. 특히, SBTi를 이해하고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CAA가 도움이 되었음을 설명하며, “계열사들에게 온실가스 데이터 수집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데 필요한 부분을 CAA를 통해 정립할 수 있었고, ESG팀뿐만 아니라 각 계열사담당자도 CAA를 수강하도록 독려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이상원 대리는 SBTi에 가입하고 Scope 3 배출량 산정에 대한 노하우를 얻기 위해 CAA의 Scope 3 교육을 집중적으로 들었고 “CAA 내용이 방대하지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집중력을 높여 수강한다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CAA 참석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외에도 △ 섹터별 특이사항 및 동종업계와의 조언, △ 경영진 소통 과정 및 장애물 극복 경험, △ 앞으로의 계획 등을 나누며 CAA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CAA 알럼나이 초청대화

4. 참여사 현황 공유

마지막 순서로는 이선미 UNGC 한국협회 팀장의 진행으로 참여사간 온실가스 감축 현황 및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 참여현황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사들은 △온실가스 산정계획, △Scope 3 대처방안, △LCA 진행 현황, △SBTi 가입 현황, △경영진과의 소통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CAA 참여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을 국내 기업 실무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의 과학기반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CAA 참여사 현황 공유



이선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

문의: 장한별 과장, 김예영 연구원 (070-4327-9768, 02-6954-2148,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4. 「SDGs 를 위한 CFO 연합」 온라인 설명회(8/29) 신청 안내



보다 지속가능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전환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과 재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역할과 연대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SDGs를 위한 CFO 연합(CFO Coalition for the SDGs)은 전 세계 기업 CFO를 타겟으로 하는 최초의 UN 이니셔티브로, 수조 달러의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의 CFO를 통해 기업의 재무 전략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도록 하며 SDGs 및 지속가능성 투자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기업의 재무 및 투자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이끄는 글로벌 CFO의 연대에 동참하기 원하는 한국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간	내용
14:00 - 14:05 ('05)	인사 및 세션 소개
14:05 - 14:10 ('05)	Financing a Sustainable Future: CFO Insights (영상) - Alberto De Paoli, Enel Group
14:10 - 14:25 ('15)	<SDGs를 위한 CFO 연합> 소개
14:25 - 14:40 ('15)	<SDG 통합 투자 및 금융에 관한 CFO 원칙> 소개
14:40 - 15:00 ('20)	Q&A

※ 보안 시스템 등으로 인해 등록이 어려울 경우, 기업·기관명/부서/성함/직함/이메일/전화번호를 적어
gckorea@globalcompact.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UNGC 한국협회 이상현 과장(070-4327-9771) | [공식 웹사이트] www.cfocoalition.org

브로슈어 다운로드

참석 등록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2023 UNGC 리더스 서밋 개최 2023.09.19 | 미국 뉴욕



2023년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은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UN General Assembly High-Level Week)에서 열리는 SDG Summit 2023에 일환으로 전 세계의 비즈니스 리더들, 유엔 관계자들, 정부 지도자들, SDG 이해관계자들,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 SDGs 진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리더스 서밋에서는 글로벌 복합위기에서의 비즈니스 리더십, 원칙기반 접근법의 역할, 글로벌 동향 등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완전히 달성하는데 필요한 톨과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행사에서는 민간 부문이 2030 의제를 발전시키고, SDGs의 17개 목표의 전반에 걸쳐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섯 가지 체계적 영역인 생활임금, 기후변화, 물 관리, 성평등, SDGs 투자에 대한 측정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연사



SANDA OJIAMBO
Assistant Secretary-General
and CEO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RICHARD MATTISON
Vice Chair of S&P Global
Sustainable1 and
Chief Executive Officer of S&P
Global Trucost



DELIA FERREIRA
Chair
Transparency International



CHRISTIAN STRACKE
Managing Director, President,
and Global Head of the Credit
Research Group
PIMCO



EVA ZABEY
CEO
Business for Nature



MAGGIE LAKE
Business Journalist; former
CNN Correspondent
MC of the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 9 월 18 일까지 참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부분적인 행사만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참가 등록

FAQ



LEADERS SUMMIT

SPECIAL THANKS TO OUR PATRONS



















SPONSORS



















**CFO
COALITION
FOR THE SDGs**



제78차 유엔총회 SDG 투자 포럼

78th UN General Assembly SDG Investment Forum

2023년 9월 21일 | 뉴욕증권거래소(NYSE)

제78차 유엔 총회 기간 동안 SDGs를 위한 CFO 연합과 그 파트너기관은 기업, 투자자, 중개기관, 국제기구의 고위급 대표를 초청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한 민간 부문의 역할을 논의하는 SDG 투자 포럼(SDG Investment Forum)을 개최합니다.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는 본 포럼에서는 기업 투자 및 금융이 2030 아젠다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기업의 SDG 연계 투자의 전략적 필요성 및 SDG 연계 금융 상품과 관련한 SDG 타겟목표의 중요성과 신뢰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조연설 및 패널 토의 외에도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워크숍이 포함되어, 기후 관련 투자 및 자금 조달에 관한 CFO 연합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이러한 첫번째 활동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 SDGs를 위한 CFO 연합 홈페이지 www.cfocoalition.org

SDG 투자 포럼에 참석을 희망하거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메일 주소로 내용을 접수하고 참석 가능 여부를 확약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sdginvestmentforum@unglobalcompact.org로
문의하기 (영문 메일 작성)

자세히 보기

2. UNGC, 공급망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브리프 발표



UNGC는 8월 3일 “공급망의 정의로운 전환” 제하의 새로운 비즈니스 브리프를 발표하여, 기업이 정의로운 전환을 공급망 위험관리 전략의 핵심으로 두어 기업이 기후위기를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가능한 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대화, 노동권 및 양질의 고용에 관한 원칙을 기후 위험 관리 전략에 포함하여, 비즈니스, 근로자 및 지역 사회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UNGC 사무총장인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는 새로운 브리프 발표에 대해 “기업은 탈탄소화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공급망에 적용하여, 비즈니스, 근로자 및 더 넓은 지역 사회를 위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공정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길을 닦을 고유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기업은 또한, 비즈니스를 전환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대화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포용하고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를 조성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열망을 충족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운영 방식뿐 아니라 전체 공급망 관리에도 중요합니다.

이 브리프는 공급망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 운영 정책 및 비즈니스 관행을 구현하는 기업 사례를 소개하고, 다자간 프레임워크의 중요성, 정부의 역할 및 이해관계자 협력에 대해 논의합니다. 끝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과 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섯 가지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한편, UNGC 한국협회에서는 ‘공급망의 정의로운 전환: 비즈니스 브리프’의 국문 번역본을 발간할 예정이며, 온라인 버전은 UNGC 한국협회 공식사이트 자료실에서 추후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한국가스기술공사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1. 기업 소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힘찬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1993년 창립 이후 30년 동안 천연가스 설비의 안전관리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신뢰성 확보로 국가발전에 공헌해 왔습니다. 5개 천연가스 생산기지 설비와 전국 공급 주 배관망에 대한 완벽한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기술과 품질을 겸비한 국내 최고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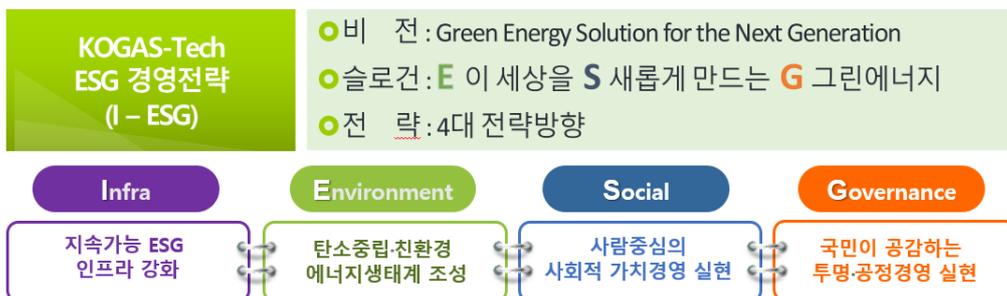
또한 국내 최초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인 LNG 저장설비 설계 국산화를 실현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공사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제2창업'을 선포하고 친환경에너지 기술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차세대 에너지 설비 영역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직원·협력업체·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원칙을 준수하고자 다양한 환경, 인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22년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 친환경에너지 기술 기반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한 비전과 슬로건,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비전은 탄소 중립과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 그린에너지 기술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Green Energy Solution for the Next Generation'으로 선정하였고,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이(E) 세상을 새(S)롭게 만드는 그린(G)에너지!'라는 슬로건을 제정하였습니다. E, S, G 이니셜을 기반으로 비전의 의미를 강조하고 ESG 경영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술 기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슬로건 아래 4대 전략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4대 전략으로는 지속가능 ESG 인프라 강화, 탄소중립·친환경 에너지생태계 조성, 사람중심의 사회적 가치경영 실현, 국민이 공감하는 투명·공정경영 실현을 선정하여 I-ESG 라는 KOGAS-Tech 형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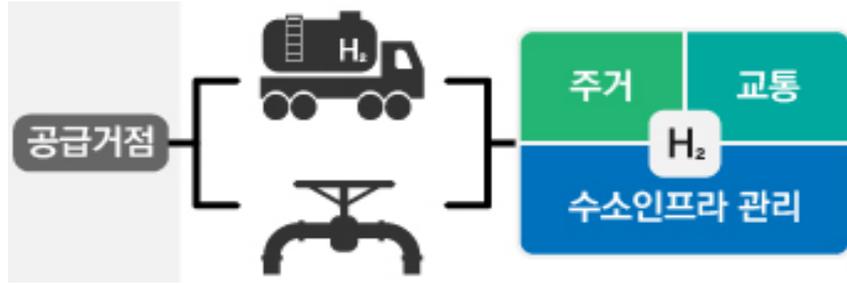
Environment! 탈탄소·친환경에너지 수소산업 선도

한국가스기술공사는 1993년 천연가스 설비정비 전문 회사로 설립한 이래 전국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공급 배관망 정비·관리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적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위한 탈탄소 청정 수소에너지 산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소생산에서 공급, 충전에 이르는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토탈 수소산업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택의 수소생산기지에서는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개질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소 개질의 경우 수소 1톤 생산 시 발생하는 약 8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 대응하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을 개발하고, CCUS 설비를 설치하여 약 5.7톤(회수율 75%)의 이산화탄소를 회수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수전해(물을 전기분해) 방식의 청정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대관령에 위치한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수소생산기지 조감도]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구축 등 대규모 수소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기지, 메가 충전소, 공동주택 연료전지, 수소버스 전용 충전시스템, 한옥마을 관광 수소버스 운영, 스마트팜 내 수소에너지 활용, 산불감시용 수소 드론 활용 등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Total Solution 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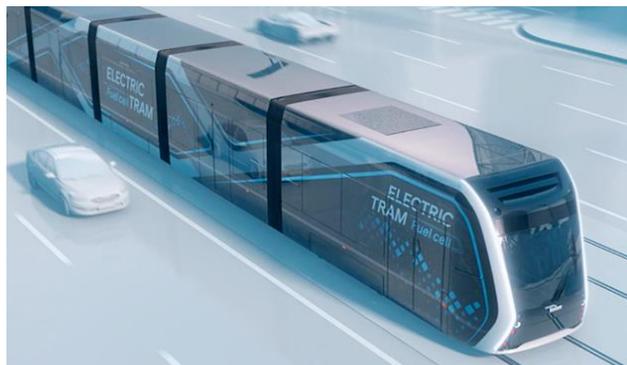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개념도]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계획도]

이러한 수소사업은 향후 대형 상용차량인 트럭과 버스에 적용하여 트럭터미널을 통한 장거리 화물 운송 경쟁력 확보, 버스차고지 충전서비스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및 장거리 여객 운송 경쟁력 확보,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수소트램, 도심 적합 개인항공기인 UAM 등 다양한 수소 사업 진출을 위한 탈탄소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을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수소트램]

Social! 사람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되고자 지역 민간기업, 대전·충청권 24개 대학, 대전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충남대학교 민·학·공 협력 오픈캠퍼스' 과정 운영을 통해 가스산업의 이해, 산학연계 세미나, 광역(한국가스기술공사-한전원자력연료) 오픈캠퍼스, 에너지 광역 캠퍼스 과정 등 정규학기(15주,

3 학점 인정), 계절학기(5~10 일 과정)을 통해 에너지 경영관리, 각 기관별 업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 및 경영관리 직무역량 향상 교육, 현장 견학 등 업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대학 학생들의 관련분야 취업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픈캠퍼스 강의

재직자 멘토링

또한 대전사회혁신 플랫폼(대전시, 공기업 등) 참여 인증 사회적 기업인 씨오쟁이와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 전문가 양성과정(KOGAS-Tech 2U 서포터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문제에 대해 가설 수립, 공감지도 후 현장 탐방을 하고 가설에 대한 분석 후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 정의, 지역사회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른 사회적가치 프로젝트를 기획 및 피드백 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통해 지역사회활동 계획을 통해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팀별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지도를 거쳐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제 발굴 및 소셜벤처경연대회, 사회문제해결형 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년도 참가팀 중 3 개팀 전체가 대전 지역대회 입상을 하였으며, 현재 전국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지역사회에 직접 뛰어들어 지역사회 문제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봉사활동에도 앞장서 지역사회의 호응도 이끌어냈습니다.



[Kogas-Tech 2U 서포터즈 블로그 활동]

끝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21년부터 사회적 취업약자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기업 매출지원의 일환으로 'Dream Coffee'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를 통해 장애우 바리스타에게는 직접 커피를 내리는 직업훈련의 장을 제공하여 향후 장애우들의 카페 창업 등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복지일자리 사업 참여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 복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카페 내 일부 공간은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우수 생산품 홍보 및 판매공간으로 활용하여 경제활동 선순환을 지향합니다. 그리하여 공사 직원들에게는 저렴하고 질 좋은 음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공사 내외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팬택씨앤아이 계열, UNGC 가입... “지속 가능한 성장 이어갈 것”



- 팬택씨앤아이 계열이 올해로 창립 32 주년을 맞으며, ESG 경영 강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에 가입했다고 밝힘.
- 팬택씨앤아이 계열 관계자는 “이처럼 지주사 및 계열사 6 곳이 동시에 UNGC에 가입한 사례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팬택씨앤아이 계열의 ESG 경영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지주사와 계열이 함께 UNGC에 가입함으로써 팬택씨앤아이 계열이 ESG 경영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함.

국민일보

2. 인라이트벤처스, 국내 VC 최초 UNGC 가입...“ESG 경영 강화”



- 기술형 스타트업 전문투자사인 인라이트벤처스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밝힘. 인라이트벤처스의 UNGC 가입은 국내 벤처캐피탈(VC) 중 최초임.
- 인라이트벤처스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책임투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투자검토 단계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준용한 ESG 점검 과정을 도입하는 등 방향성 제고에 힘을 쓰는 중”이라고 전함.

머니투데이

3. SK 이노베이션, 소셜벤처에 ESG 노하우 나눔…환경가치 창출 지원한다



- SK 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이 전문화된 전과정평가(LCA) 역량을 활용해 이해관계자의 환경가치 창출을 지원함.
- 전과정평가는 △원료 수급 △제조 △포장 △운송 △사용 △폐기 등 제품 생애주기 전(全)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측정 및 평가하는 방법임. 각 과정에서의 자원 투입량과 배출량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정량화하는 것으로 탄소발자국 등 여러 조건의 계량화가 가능함. 또한 개선 목적의 데이터도 관리할 수 있음.

전자신문

4. 현대차 노사, 저출산·육아지원 전담팀 구성



- 현대자동차 노사가 국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육아지원 전담팀을 구성함.
- 전담팀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차 노사 차원의 방안을 찾고 결혼부터 육아, 취학 등 직원 생애주기에 기반한 종합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현대차는 노사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대책을 찾고자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국내 대기업 중 처음임.

서울경제

5. '탄소중립에 진심' LG 전자...작년 온실가스 22 만 t 줄였다



- 체계를 구축해, SK 이노베이션 계열 제품과 신규 사업 검토에 적용하며 환경영향 관리와 탄소저감 노력에 활용하고 있음.
- 김일수 SK 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기술전략그룹장은 “SK 이노베이션은 '넷제로 달성을 위한 객관적 평가 방법인 전과정평가 측정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SK 이노베이션 계열 사업은 물론 소셜벤처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아시아경제

6. KB 증권, MZ 세대와 해운대 플로깅 캠페인...ESG 경영 실천



- KB 증권은 29 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플로깅 캠페인 '깨비증권 체인지 아워 라이프(Change Our Life) 해운대'를 진행함.
- '깨비증권 Change Our Life'는 KB 증권 ESG 경영의 일환으로,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북적이는 해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획된 사회공헌사업임.
- 이번 해운대 플로깅 캠페인의 테마는 'MZ 세대와 함께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으로, 친환경 콘텐츠 청년기업 '부티플'과 부산 지역 MZ 세대 플로깅 및 러닝 크루, KB 증권의 20~30 대 젊은 직원 등 총 120 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함.

나눔경제뉴스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7 월 19 일부터 8 월 15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4 곳입니다.

- SK 스퀘어
- 에이치엘사이언스
- 에프에스코리아
- 오토노머스에이투지

2. CoE 제출회원

7 월 19 일부터 8 월 15 일까지 3 개 회원사가 CoE 를 제출했습니다.

- (사)BPW 한국연맹
- 한국무역보험공사
- 기술보증기금

※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올해 3 월 디지털 CoP 플랫폼을 오픈하고 일괄 제출기간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술적인 문제로 플랫폼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6 월 15 일부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CoP 제출을 임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을 점검하는 동안 영리 회원사는 CoP 질문지 템플릿(PDF, Excel)을 참고하여 계속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UNGC 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디지털 플랫폼의 기능을 업데이트 하고 향후 단계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

자세히 보기

3.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